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실천은 생각에서 오는가

반복되는 일상은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심지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며 지나온 날이 허무하게 다가오곤 한다. 이러한 일상은 정해진 시간에, 다그치는 일탈에, 얼마 아빠라는 무게에 떠밀려 억지로 일어나기 일췌이다. 그 졸음에 졸음은 더해지고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은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 '이게 뭐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이 늘 뇌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처럼 반복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일을 반복한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삶의 무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푸르름을 유지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불특정 다수의 '그'와 '그녀'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본 가족의 변함없는 얼굴과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해야 하

는가? 소위 세상의 잣대로 정해진 소위 나쁜 것이 아니라면 '모험'은 푸르름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일하는 로또인가?', '일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등등 일상의 반복이 가져오는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면 윤기 없는 얼굴에 비틀거리는 몸뚱이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모험'이다. '모험'은 '10대, 20대, 늦어도 30대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커져서 쌓일수록 '모험'이라는 두 글자를 가까이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모험'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모험'이라는 조건이 전제할 때, '모험'은 '실천'을 요

구한다. 이 '모험'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탈선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새롭게 할 창조적 자극이다. 생각만으로 안 되는 것이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에는 책임질 준비가 필요하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독일 교백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반나치스 운동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암살계획은 실패하고, 1943년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출처 : http://www.doopedia.co.kr) 그는 책임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익숙한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있다. 구슬이 날개로 존재할 때보다, 그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물건이 될 때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 라는 의미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라는 뜻이다.



박여범

용복중학교 교감 · 시인 · 문학박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혈액 부족”... 헌혈하는 독일 사람들



18일(현지시간) 독일 에르푸르트에 한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병원들의 혈액 부족 소식에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다.

지진 후 집안 정리하는 美 가족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에서 18일(현지시간)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한 가족이 어지럽혀진 집안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이 지진으로 겁에 질린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주택 수만 채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으며 공회와 경전철 등이 한때 폐쇄됐다.

사설 전북도, 코로나 침투 계속 경계해야

코로나에 대해 계속 경계해야겠다. 이번에 전북 지역에 확진 환자가 3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주의하고 계속 경계해야겠다. 지난 며칠 간은 서울 경기쪽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대구와 경북을 상회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또다시 대구 쪽에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여기 거둬 언급하거나 은혜의 강 교회가 보여준 일탈 행위는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개신교인 그들은 신천지 집단을 이단이라고 통매했을 것이다. 신천지 집단은 코로나 19의 처음 온상이라는 점에서 꾸짖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은혜의 강 교회가 보여준 행태도 매도의 대상이다. 그들은 방역 당국의 호소에 따라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금물 입속 분무 소독 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입속 분무를 해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의 아내였다는 것이 추후 드러났다. 헌금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강행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

도내 모든 개신교는 서울과 경기 쪽 교회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

한 것을 두고 심상히 여겨선 안된다. 전북도는 도내의 교회들에게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집회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장 예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판 소리를 내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전국적으로 지난 닷새동안 두자리 숫자이던 신규 확진 환자가 다시 또 세자리 숫자로 늘어났으니 하는 말이다.

대구 한마음 요양병원과 다른 요양 시설이 보여준 행태를 반면 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사설을 쓰고 있는 현재도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 터이다.

보나마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면 확진 환자 수와 사망자의 수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계속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될 터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내일이다.

미국을 다녀온 군산 시민이 신규 확진 환자가 드러난 것은 전북도와 방역 당국이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일깨움을 주고 있다.

청년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북도는 도내 젊은이들에게도 눈길을 주어야겠다. 희망의 근거가 왜 달라는 당부이다. 젊은이들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불과 두 달여 전의 일이다.지역의 취업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까닭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알만했던 것은 그래서이다.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때만해도 전북 탈출 정서를 드러낸 젊은이들이 많았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어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이제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안된다.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 나 떨쳐버릴 것인가. 전북도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

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많은 젊은이들의 입장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어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고용 쇼크를 언급할 때마다 지적했거니와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도내 젊은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코로나 퇴치 못지 않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내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